

35km의 자전거 출퇴근 記

이력사업본부 이력관리팀 대리 남승엽

전산 담당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주로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나로서는 어떤 운동이라도 절실했다. 주중에는 바쁜 회사일정으로, 대부분 가족과 함께 보내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전거 출퇴근”.

마침 얼마 전부터 새로 구입한 MTB형 자전거를 군포역에 세워놓고 역과 회사 간 이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장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회사에서 집까지 대중교통으로도 한 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는 꽤나 긴 거리여서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시작한다면 실패할 것 같아 나름대로 경로 파악 및 필요장비 등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여 최단거리를 검색하여 경로 파악 후 자가용으로 그 경로를 두 번 사전답사 했다.

사전 답사로 찾아낸 최적의 경로는 '회사에서 평촌, 1번 국도로 쪽 달리다 시흥사거리에서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한다. 그러다가 동양공전 앞에서 빠져나와 목동을 경유하여 강서구 발산동 도착' 이다. 총 거리는 31km. 다음은 장비! 어두울 때 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반짝이는 LED 전조등과 후미등, 안전모 등을 구입했다.

모든 준비를 끝낸 후 D-Day를 10월 30일로 잡았다.

드디어 30일. 설레는 마음과 도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으로 저녁 8시 반경에 회사를 출발했다. 12여분을 지나 금정역 부근에 도착, 평촌을 지날 때는 30여분 경과, 중간지점인 시흥사거리까지는 1시간 10여분이 소요됐다. 그 이후 시흥사거리에서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동안의 기분은 상쾌했고 나름대로 환상적인 풍경과 둔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일상과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았다. 드디어 난코스,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빠져나와 구로에서 목동을 지나 발산동까지의 경로는 산을 도시화한 탓에 오르막과 내리막 많아 생각보다 힘든 코스였다.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끙끙, 내려갈 때는 인도로 가다 보니 울퉁불퉁하고 사람들을 피하느라 속도도 낼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20분경, 2시간 50분이 소요됐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다시 도전하고 싶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자전거를 차에 싣고 회사로 출근했다.

그날 저녁, 다시 한 번 도전을 위해 경로를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금정역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도로가 쭉 이어져 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저녁 9시, 무장을 한 후 금정역에서 안양천으로 빠져나와 평촌, 시흥사거리, 안양천 자전거 도로로 쪽 달리다보니 한강까지 나왔다. 회사에서 금정역까지 10분, 한강에서 평촌까지 10분, 나머지 거리는 안양천 자전거 도로로 쪽 달렸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LED 전조등과 후미등, 안전모를 구입하여 첫날 보다 1시간이 단축된 1시간 50분이 소요됐다. 대중교통보다 거의 2배는 더 빠르다는 사실에 몇 번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했으나 날씨가 쌀쌀해진 이유로 요즘에는 못하고 있다. 날씨가 풀리는 대만 봄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

도전! 그것은 나에게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앞으로도 『도전』이라는 활력소로 나의 삶을 충전하면서 살아가야겠다.